



한국 조영욱(오른쪽)이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수원 JS컵 U-19(19세 이하)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마지막 날 일본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 골로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7세 막내의 한 방...U-19 우승 쏘다

조영욱, 수원 JS컵 일본전 결승골
최종 2승1무로 우승...박한빈 MVP

19세 이하(U-19) 대표팀의 막내 조영욱(17·연남고)이 큰일을 냈다. 한국을 우승으로 이끄는 골로 안익수(51)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

조영욱은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6 수원 JS컵 U-19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결승골을 뽑아 한국에 1-0 승리를 선사했다. 개최국 한국은 2승 1무, 승점 7로 브라질(1승2무)을 따돌

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미드필더 박한빈(19·대구FC)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조영욱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됐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공격라인에 변화를 줬다. 조영욱이 최전방에 자리했고, 김시우(19·광주FC)와 이동준(19·송실대)은 공격 2선에 배치됐다. 정정환 형님들 사이에서 선제골을 신고한 것은 막내 조영욱이었다. 그는 후반 31분 임민혁(19·FC서울)이 스루 패스한 볼을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상대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망을 흔들었다.

조영욱은 경기 후 "열렬했다. 감독님께서 일본은 수비가 바짝 붙어 따라오니 공간침투를 통해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해주셨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욱은 팀의 막내임에도 에이스를 상징하는 '10'을 등번호로 달고,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팀을 이끄는 안 감독이 조영욱에게 직접 부여한 번호다. 그만큼 조영욱을 향한 안 감독의 믿음도 두텁다. 안 감독은 "조영욱은 번뜩이는 골 감각이 있다.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타고난 재능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조영욱은 지난해 칠레에서 펼쳐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며 기량을 갈고 닦았다. 안 감독의 눈에 들어온 것도 그 덕분이다. 안 감독은 "17세 명단에서 제외되고 본인의 단점 보완하기 위해 소속팀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발탁했다. 자신감을 갖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선수다"고 크게 기대했다.

수원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이적설’ 이청용·손흥민...기회일까, 시련일까

사커 토픽

이청용, 감독과 마찰 “이적 모색”
현지언론 “손흥민 되팔려고 한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2명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크리스털 팰리스 소속 이청용(28)은 22일(한국시간)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FA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결승전을 끝으로 2015~2016시즌을 마쳤다. 그는 이 경기에서도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즌 도중 열린 파두 감독의 팀 운영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던 그는 이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계약 기간 2년이 남아 크리스털 팰리스에 잔류해도 되지만, 감독과 관계가 불편한 만큼 남더라도 출전 기회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 시즌 자주 그라운드를 밟기 위해선 팀을 옮겨야 한다. 이청용도 일찌감치 “이적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청용보다 일찌감치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토트넘 손흥민(24)도 이적설에 휩싸였다.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는 21일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을 지난해 여름 2200만파운드(약 382억원)에 영

입한 토트넘이 첫 시즌 부상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친 손흥민을 되팔아 다른 포지션의 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손흥민은 2020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선수가 원치 않으면 이적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트넘에서 선수를 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와 유쾌한 상황 이 아니다.

이청용과 손흥민을 포함해 잉글랜드에서 활약 중인 태극전사들은 2015~2016시즌 부상과 주전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워크 퍼밋(취업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는 등 경기력 외적으로도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

종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0위 이내 국가들 중 비 유럽권 국적의 선수에게 워크 퍼밋을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규정이 바뀌면서 FIFA 랭킹 50위 이내로 기준이 강화됐다. 한국의 5월 FIFA 랭킹은 54위로 50위 밖이다. 잉글랜드 소속 클럽으로 이적한 태극전사가 워크 퍼밋을 받으려면 예외규정에 따라 해당 클럽과 감독이 영입의 필요성을 이민국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한국선수에게는 불리한 수밖에 없다. 한국인 프리미어거들의 거취가 이번 여름이적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lyon@donga.com



이청용

손흥민

여자농구엔 김연경 같은 선수 없나?

위성우 감독 대표팀 선수난에 한숨
포인트가드 이정은까지 부상 이탈

“선수가 없어요.” 여자농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위성우(45·우리은행) 감독의 한탄이다. 그의 말대로 대표팀은 ‘선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대표 12명을 선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다. 포지션을 포인트가드로 좁히면 자원은 더 부족하다.

2016리우데자네이루 출전권을 얻기 위해 6월 13일부터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최종예선에 나설 대표팀의 주전 포인트가드 이정은(29·KDB생명)은 어깨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다. 위 감독은 가드를 찾았지만 자원이 없었다. 김규희(24·신한은행)는 발목 수술을 했고, 홍아란(24·KB스타즈) 역시 발목이 좋지 않다. 위 감독은 “마음 같아선 은퇴한 이마선(37), 변연하(36)를 대표팀에 합류시킬까 생각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이정은의 빈 자리에는 포워드 고아라(28·삼성생명)가 대신 합류했다. 포인트가드로는 이은혜(27)와 이승아(24·이상우리은행)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위 감독은 여자배구가 부럽다. 여자배구대표팀은 일본에서 펼쳐진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월드스타’ 김연경(28·페네르바체)의 맹활약 덕분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위 감독은 “해



6월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하는 여자농구대표팀 위성우 감독(앞)이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대표팀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은퇴로 전력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 | 테크스넷

외리그에서 뛰는 스타급 선수가 있다는 것은 팀 분위기는 물론이고, 그 팀의 경기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여자농구에는 김연경 같은 선수가 어디 없나 모르겠다. 아쉬운 부분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슈퍼스타 없는 여자농구대표팀의 경쟁무기는 조직력이다. 지난달 25일 소집된 이후 진천선수촌에서 합숙훈련에 한창이다. 위 감독은 “우리는 경기를 지배할 만큼 ‘농구 잘하는 선수’는 없지만, 전부 ‘농구 열심히 하는 선수’로 구성됐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다. 힘들 텐데 다들 림팔 없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농구로 올림픽에 도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t농구단, FA 김종범·천대현 동시 영입

김종범 연봉 2억4000만원 5년
천대현 1억7000만원 2년 계약

kt가 남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KBL이 20일 FA 영입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kt는 김종범(26)과 천대현(32)을 동시에 영입했다. kt는 김종범에게 연봉 2억4000만원과 계약기간 5년, 천대현에게 연봉 1억7000만원과 계약기간 2년을 제시해 경쟁팀을 따돌렸다. 식스맨급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샐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kt는 둘을 동시에 잡기 위해 호조건을 내걸었다.

원 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 기간에 박상우(35), 김우람(28), 윤여권(32)과도 계약한 kt는 즉시전력감 선수들을 대거 보유하게 됐다. 김종범은 외곽슛에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고, 천대현은 193cm로 신장이 좋으면서도 상대 가드까지 수비해낼 수 있는 스피드와 끈기가 뛰어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는 조성민(33), 이재도(25), 박철호(24), 이



김종범

천대현

광재(32) 등과 함께 8~9명 정도의 선수를 언제든지 코트에 내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됐다.

그럼에도 국내 빅맨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kt는 신인드래프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위순위 선발권을 확보해 이종현(22), 강상재(22) 등 파워포워드 또는 센터 자원 영입을 꿈꾸고 있다. 원하는 바대로 이뤄지면 2016~2017시즌 4강 이내의 성적도 노려볼 만한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FA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타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박성진(30), 정병국(32), 이승준(38), 이관희(28) 등 총 16명은 25일부터 원 소속구단과 재협상한다. 원 소속구단과 합의하지 못한 선수는 은퇴하거나 1년을 쉬어야 한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리우올림픽 입장권 판매율 67% 기대이상

8월 열리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입장권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리우올림픽 입장권 판매 책임자인 도노번 페레iras는 최근 “티켓 판매가 잘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 국민은 대체적으로 대회가 임박해야 티켓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67%의 판매율은 기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일반 판매분 600만여 장 가운데 현재까지 400만여 장이 판매됐는데, 나머지 200만여 장 중 80만여 장은 축구로 알려졌다. 남녀축구의 대륙별 예선 일정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고, 대회 조 추첨

은 지난달 끝났다.

그러나 리우올림픽의 성공 개최 여부에 대해선 시선이 제각각이다. 2018년 말 임기가 끝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며 브라질 정국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탄핵을 놓고 찬반 여론이 들끓는 데다, 지카 바이러스 등 끊임없이 창궐하는 각종 풍토병으로 인해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경기장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다. 실패에 가까웠다는 혹평을 받은 2년 전 브라질월드컵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e3@donga.com

양학선, 추천선수로 대표팀 합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던 양학선(24·수원시청)이 대한체조협회 우수선수 추천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희망을 이어갔다. 체조협회는 22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기계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양학선을 추천선수로 대표팀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리우행

확정은 아니다. 이날 선발된 선수는 모두 6명인데, 리우올림픽에 나설 선수는 5명이다. 소정호 체조협회 사무총장은 “양학선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보고 판단했다”며 “올림픽 엔트리 마감인 7월 18일까지 자체평가를 통해 5명을 가려낼 계획이다. 양학선이 그 때까지 몸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머지 5명이 리우로 간다”고 밝혔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